

부음

민재기 정문사문화(주) 대표이사의 모친이 지난 4월 7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정광훈 제임एम아이(주) 회장의 부친이 지난 3월 30일 별세했다.

민관홍 경성제책사 사장의 모친이 지난 3월 22일 별세했다.

김형호 (주)학천프린팅 사장의 부친이 지난 3월 24일 별세했다.

신오식 (주)일진커뮤니케이션 회장의 장모가 지난 4월 11일 별세했다.

김흥기 영화인쇄(주) 대표이사의 부친이 지난 4월 16일 별세했다.

화촉

이지영 경미인쇄사 사장의 차남 문성군이 지난 3월 22일 팜스퀘어컨벤션에서 화촉을 밝혔다.

이병도 (주)아트미디어 사장의 차녀 성아양이 3월 22일 지구촌교회 지하2층 분당에서 화촉을 밝혔다.

황백희 문우당전산품 사장의 장녀 미진양이 4월 5일 현대컨벤션웨딩홀 5층 노블레스홀에서 화촉을 밝혔다.

정윤곤 (주)정문출판 사장의 차남 석연군이 4월 5일 한국의 집에서 화촉을 밝혔다.

신병태 대산문화인쇄 사장의 장녀 은혜양이 지난 4월 12일 PJ호텔에서 화촉을 밝혔다.

오세의 대한인쇄문화협회 전무이사의 장남 용진군이 지난 4월 12일 노블레스컨벤션웨딩홀에서 화촉을 밝혔다.

리우식 경림코퍼레이션 사장의 장남 준재군이 지난 4월 12일 롯데호텔에서 화촉을 밝혔다.

신현 대한인크 사장의 차남 문철군이 지난 4월 19일 묘동교회 분당에서 화촉을 밝혔다.

윤흥력 정우인쇄사 사장의 장녀 영선양이 지난 4월 19일 한국의집에서 화촉을 밝혔다.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 위원 위촉식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식이 지난 4월 15일 오전 10시30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실에서 개최됐다. 유인촌 장관이 참석한 이날 위촉식에서 유 장관은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인쇄의 질을 높이고 인쇄문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자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에서 인쇄문화산업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업계 발전은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좋으며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은 김정선 (주)보진재 대표이사, 김방지 전인쇄여성경영자회 회장(양동문화사 대표), 김혜경 (주)두성종이 미술고문, 노영혜 (주)대한출판문화협회 이사, 류명식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교수(해인기획 대표), 박문열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직지세계화 자문위원), 안영주 진흥PND 대표, 오성상 신구대학 인쇄정보미디어학과 교수(한국인쇄학회 부회장), 오세익 (사)대한인쇄문화협회 전무이사, 조용국 (재)대한인쇄연구소 소장 등 10명이다.

한편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원장에 김정선 (주)보진재 대표이사를 선임했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장이 맡는다.

이날 구성된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문화관광부가 인쇄 및 출판단체들로부터 추천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인재풀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10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다.

대한인쇄문화협회 제1회 이사회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는 지난 3월 27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중구 PJ호텔에서 제39대 임원진이 구성된 후 첫 이사회를 개최했다. 신임 이사진의 상견례를 겸해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원진 소개와 함께 인쇄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홍우동 회장은 개회사에서 “새 회장으로 선출해 준 회원님들과 이사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업계와 대한인쇄문화협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 “올해부터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출판인쇄과가 설치되어 우리 업계 발전의 토대가 마련된 만큼 합심단결하여 오늘의 난관을 극복하고 미래를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임임원 ▶회장 : 홍우동(동국문화주) ▶부회장 : 민창준(창성문화), 김국(은성정밀인쇄주), 김남수(청아문화사) ▶전무이사 : 오세익 ▶이사 : 권종상(상문), 김방지(양동문화사), 김범식(한국하이텔베르그주), 김삼식(고려문화), 김양평(지엠피트레이드), 김영길(대영전산품), 김영철(두성칼라), 김원희(대광전산품), 김정선(보진재), 김종호(경남인쇄사), 김진배(유진프린팅), 김충웅(한성실업), 남중현(필경사인쇄정보주), 남상진(서강총업주), 노길용(프린테크), 노주현(진양인쇄공사), 박용기(삼조인쇄주), 방희영(시온정판사), 배명수(한성칼라), 신병태(대산문화인쇄), 신장섭(네오프린텍주), 안경만(경인정보문화사), 안광범(도서출판 사람과지혜), 원종철(삼원인쇄주), 유정기(삼성프린팅), 이광욱(홍보컴), 이광재(서진인쇄사), 이미래(씨마스커뮤니케이션), 이순석(동일정보인쇄주), 이정백(대한인쇄사), 이재환(태양씨앤피), 이창래(상지피앤아이), 이춘화(신일기획문화주), 이충원(선문사),

임인영(성광기획인쇄), 장현수(성문인쇄사), 전순관(갑우문화사), 조만영(태영전산품주), 조정석(대원문화사), 채명훈(삼성인쇄주), 최은철(현대씨앤피주), 최창근(한성P&I), 추용호(화신문화주), 홍덕기(남양프로세스), 홍순제(성신프린팅) ▶감사 : 정용식(한보인쇄사), 김건국(을지인쇄주).

중국 청도시청 관계자 인쇄문화협회 방문



중국 청도시청 신문출판국 윤경위 부국장 일행(10명)이 지난 4월 1일 대한인쇄문화협회를 방문했다. 이날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장과 윤경위 청도시청 신문출판국 부국장은 양국 간의 인쇄문화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홍우동 회장은 “한국의 수준 높은 기술력과 중국의 풍부한 인력을 통해 상호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경위 부국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인쇄관련 정보의 교환 등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확대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안에 청도시에서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원을 초청하기로 약속했다.

서울특별시장 초청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의 경영현장의 애로사항을 타개하여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4월 23일 중앙회 2층 국제회의장에서 ‘서울특별시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앙회 및 서울시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비롯해 중소기업 애로사항 건의 및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전
<p>(주)동진비즈니스폼(대표이사 오성일)은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91-3으로 이전했다.</p> <p>(주)정인아이엔디(대표이사 정순덕)는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77-2로 이전했다.</p>
변경
<p>인쇄나라(대표 김은숙)는 최근 상호를 정우D&P로 변경했다.</p> <p>(주)신문문화출판사의 대표이사에 최근 김지용씨가 취임했다.</p>

성도GL/솔루윈 김광윤 부장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공로패 수상

(주)성도GL/(주)솔루윈(대표이사 김상래)은 지난 3월 25일 고객성장혁신팀의 김광윤 부장이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에서 수여한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에서 수여하는 공로패는 인쇄산업 및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청주직지축제 추진위원회 개소식

청주직지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곽연창)는 직지축제추진위원 및 직지와 관련된 단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사무국 개소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직지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문화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청주직지축제 준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금년 직지축제는 제5회째를 맞으며, “상상”이라는 주제로 9월 4일부터 청주예술의전당 및 고인쇄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상업윤전 시장 진출 반대 공한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충원),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조정석)은 최근 공동으로 매일경제신문사 대표이사에게 상업윤전시장 진출반대 공한을 발송했다. 3단체는 공한에서 인쇄업계는 인쇄용지·잉크 등 원부자재 가격의 급등과 경기불황으로 인쇄물 수요가 감소하여 업체간 덤핑과 과당경쟁이 심각해 경영난에 직면해 있으며, 대다수 업체가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자금력이 열악한 상황인데 매일경제가 신문제작용이 아닌 상업윤전인쇄기를 도입, 설치하여 일반 상업인쇄물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펼치는 것은 2만여 업체와 70만 인쇄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의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3단체는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매일경제신문 불매운동과 인쇄업계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쇄용지 가격인상 철회 요청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충원),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조정석)은 최근 공동으로 인쇄용지 메이커인 한솔제지 계성제지 무림페이퍼 이엔페이퍼 한국제지 흥원제지에 공한을 보내 인쇄용지 가격인상 철회를 요청했다. 3단체는 공한에서 최근 인쇄업계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인쇄물 수요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인쇄용지 가격 인상을 철회해야 하며 6개사가 비슷한 폭의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담합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3단체는 이와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인쇄용지 메이커들이 인쇄용지 가격을 인상하면서 담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서울인쇄센터 2008동경국제도서전 참가단 모집

서울인쇄센터(이사장 조정석)는 오는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동경에서 개최되는 '2008 동경국제도서전'에 인쇄물 수출개척단을 파견한다.

이번 수출개척단에는 도서전 부스임차, 공동인테리어, 바이어 발굴 및 섭외, 홍보 브로슈어 제작, 통역지원, 이동차량 지원 등이 제공되며, 항공료, 숙박비 등 개별 경비는 참가업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참여업체는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인쇄업체,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회원사가 참여했다. 이번 '2008 동경국제도서전' 수출개척단 파견은 산학연사업(동국대지역연구산업진흥사업) 중 하나로 이루어졌다.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회장 김진배)는 지난 3월 25일 서울인쇄센터 7층 강당에서 200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협회발전에 공헌한 회원과 회원사에 대한 표창 수여가 있는 후 200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로 진행됐고,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진배 회장은 “인쇄업계는 인쇄 기능인력 확보와 인쇄 기술력 증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쇄 및 관련 산업인이 용기를 잃지 않고 굳은 의지로 인쇄중주국의 기상과 저변을 다시 한 번 발휘한다면 우리 인쇄업계의 미래는 무한히 밝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이창연)는 지난 4월 10일 조합 회의실에서 2008년도 제5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0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로 진행됐고,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연합회측은 “수년째 업계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도서정가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점조합연합회는 전국 서점인의 권익향상과 국민의 독서문화 창달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동국대 인쇄화상전공 총동문회 창립총회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인쇄화상전공 총동문회(회장 김성욱)가 지난 3월 28일 서울 소공동롯데호텔 샤롯데홀에서 교수진과 동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총동문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초대회장으로는 김성욱 (주)육일코퍼레이션 대표이사가 추대됐다.

박찬우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창립총회는 인쇄화상전공 경과보고와 김성욱 초대회장 인사말, 교수진의 축하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성욱 회장은 “인쇄화상전공은 우리 인쇄산업의 각 분야에서 젊은 인력들이 모여 구성된 만큼 앞으로 더욱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창립총회를 계기로 모든 동문들이 인쇄화상전공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1년에 3회 정도의 인쇄관련 세미나 형식으로 동문회 모임을 개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축하인사에서 오성상 교수는 “먼저 총동문회 창립총회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앞으로 인쇄화상전공의 활성화를 위해 동문회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04년 개설된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인쇄화상전공은 출판, 광고, 신문방송 전공과 함께 언론정보대학원에 소속되어 있으며 5월부터 9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애플, 사파리 3.1 공개



애플은 매킨토시와 윈도우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웹 브라우저인 사파리(Safari) 3.1을 공개했다.

사파리는 익스플로러 7보다 1.9배, 파이어 폭스 2보다 1.7배 빠르게 웹 페이지를 로딩한다. 사파리는 또한 다른 웹 브라우저보다 6배 빠른 속도로 JavaScript를 실행하며, 차세대 쌍방향 웹 2.0을 제공하기 위한 최신 웹 표준 기술을 지원하는 최초의 웹 브라우저이다. 사파리 3.1은 Mac OS X 또는 윈도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금 애플 홈페이지(www.apple.com/kr/safari)를 방문하여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애플 월드와이드 제품 마케팅 수석 부사장인 필립 실러(Philip Schiller)는 “매킨토시와 윈도우 사용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사파리 3.1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사용하기 쉬우며, 우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추었다”며 “사파리 3.1의 가장 큰 장점은 업계를 선도하는 웹 2.0을 위한 최신 오디오/비디오/애니메이션 표준기술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파리 3.1은 HTML 5의 새로운 비디오/오디오 태그와 CSS 애니메이션을 지원하는 최초의 브라우저이며 또한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웹사이트를 제작할 때 무제한의 폰트를 선택할 수 있는 CSS Web Fonts를 지원한다.

서울인쇄조합 동국대RIS사업단과 MOU체결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조정석)은 동국대학교 지역연구산업진흥사업단(단장 이의수)과 4월 2일 RIS사업단 회의실에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조정석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MOU체결을 통해 차세대 디지털 프린팅산업 기반구축 사업이 업계 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과도기적인 디지털인쇄환경이지만 우수 전문 인력양성에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의수 단장은 “올해는 디지털 인쇄산업의 분야별 구체적 실천방안 확립과 분야별 심화교육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서는 ‘인쇄산업의 부흥과 도약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지역연구산업진흥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의 공동추진, 정보교류, 교육활동, 기술정보등에 관하여 공동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인쇄학회 2008 춘계학술대회 5월 9일 개최

한국인쇄학회(회장 오규남)는 오는 5월 9일 인쇄정보센터 7층 강당에서 2008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주)한솔제지 전성재 선임연구원의 기조연설로 시작하여 7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학술발표에는 (주)GMP 김종규 연구소장의 라미네이팅 필름의 코노라처리 효과와 주사현미경을 이용한 해석, 부경대학교 김지수 대학원생의 모노머에 따른 감광성 전극 페이스트의 패턴특성연구, (주)한솔제지 흥기안 연구원의 새로운 인쇄 뒤비침 평가법, (주)대한인크 추임호 차장의 오프셋용 무용제 솔프리 개발 및 물성에 관한 연구, (주)한솔제지 전성재 선임연구원의 윤전인쇄에서의 인쇄주름 발생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박경진 대학원생의 포토마스크가 필요없는 스크린 제판 기술의 개발 등의 논문이 발표되며 끝으로 (주)마이크로큐닉스 장영업 과장의 인쇄물 품질 측정 및 CMS 기술적 현황에 대한 초청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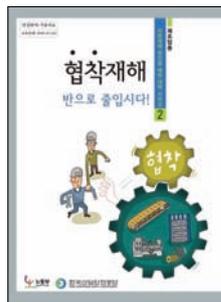
이날 행사에는 2007년도 우수논문에 대한 시상식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참가회비는 정회원 4만원, 비회원 5만원, 학생회원은 2만원이며, 참가신청은 한국인쇄학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02-2268-8200, 홈페이지 www.kgcs.org

저작권위원회 제28기 저작권문화학교 개설

저작권위원회는 제28기 저작권문화학교 일반과정을 개최한다. 저작권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번 교육은 오는 5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저작권아카데미에서 열린다. 저작권문화학교에서는 오승중 변호사(홍익대 법대 교수)가 국내 저작권법, 구병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분쟁해결팀장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최경수,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연구원장이 국제협약 등에 대해 강의한다. 이 외에도, 산업재산권법, 엔터테인먼트법,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등의 특강도 진행된다.

사망원인별 산업예방대책시리즈 6종 발행

한국산업안전공단(박길상, www.kosha.or.kr)에서는 최근 사망재해 원인별 예방대책 시리즈 6종을 발행했다. 제조업종에 대해서는 추락재해, 협착재해, 낙하재해 등의 3종을,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추락재해, 붕괴재해, 충돌재해 등의 3종에 대해 발행한 것.



지난 2007년 산업재해자는 9만147명이었다. 이중 인쇄업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하 비래재해자는 6565명이 발생하였고, 이중 89명이 사망하였다.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지게차,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연삭기 등에서 작업 중 발생하였다. 지게차의 경우 미숙련 또는 무자격자의 운전 등 인적요인과 함께 지게차 운행통로 요철로 출렁임 발생, 지게차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 등의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였다.

협착재해는 지난 2007년에만 1만5881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고, 이중 150명이 사망하였다.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컨베이어,

사출성형기, 선반, 리프트 작업과 동력전달부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추락재해는 지난 2007년에만 1만1834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고, 이중 418명이 사망하였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관계자는 “산업재해를 없애기 위한 끊임 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번에 발행된 3종의 사망재해 원인별 예방대책 시리즈를 통해 안전한 산업현장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후지필름 이노젯 UV900 미국 수출



한국후지필름(대표 유창호, www.fujifilm.co.kr)은 후지필름 독자 기술로 개발한 친환경 산업용 UV 프린터 이노젯(Innojet) UV 900을 지난 4월 2일부터 미국 시장에 선보였다. 한국후지필름에서 독자 기술 개발한 이노젯 UV 900은 UV 경화 잉크젯 방식의 제품으로, 프린트 소재의 제한이 거의 없어 프린트 업계에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제품이다. 지난 10월, 미국 플로리다의 올랜도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디지털 프린팅 박람회인 SGIA(Specialty Graphic Imaging Association) 2007에서 처음 소개된 이후, 북미, 캐나다, 유럽, 멕시코 등의 UV 프린터 분야 선진국에서 수출 의뢰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마케팅팀 최성종 이사는 “친환경적이면서도 소재에 제한 없이 출력할 수 있는 것이 UV 프린트 방식의 최대 장점이자 경쟁력”이라고 밝히면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제품 출시를 통해 국내 UV 프린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미국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예문화상품대전 공모요강 발표

제4회 청주공예문화상품대전이 10월 16일부터 11월 2일까지 18일간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다.

‘행복예감(幸福藝感)_아름다운 쓰임’을 주제로 한 이번 대전은 금속, 도자 목칠, 섬유, 기타 등 5개 분야에 걸쳐 국내에 거주하는 작가 및 디자인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며,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5일간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www.okcj.org/craft)에서 작품을 접수받는다.

몽양 여운형선생 대한민국장 수상 여인성 대중기계 대표에게 전달



대중기계(주)(대표 여인성)의 대표 여인성씨가 고 여운형 선생을 대신해 훈장증과 훈장을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고 몽양 여운형선생에 대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급)을 서울 역삼동 (사)몽양 여운형선생 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고 여운형 선생의 동생 여운홍 선생의 손자 여인성 대표에게 훈장증과 훈장이 전달되었다고 전했다.

해방직후 혼란이 극심했을 때 건국준비위원회와 치안대를 조직하여 사회혼란을 막고, 이후 민족분단을 막기 위해 좌우합작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인 공적이 재평가돼 1급 대한민국장으로 선정됐다.

신도리코 트랜스프로모 솔루션 사업 진출



신도리코(주)(대표 우석형, www.sindo.com)가 고객맞춤형 DM 제작과 관련한 ‘트랜스프로모 솔루션’ 사업을 펼친다. 신도리코는 지난 4월 7일 신도리코 서울본사 대회의실에서 고객관리 솔루션 및 우편시스템의 글로벌 기업인 피트니보우스 소프트웨어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전문 기술력과 사업 비전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트랜스프로모 솔루션(Transpromo, 고객맞춤형 DM)’은 고객의 정보와 거래내역을 뜻하는 ‘트랜잭션(Transaction)’ 과 ‘프로모션(Promotion)’의 합성어로 청구서에 고객별 맞춤형 정보 및 광고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DM 마케팅을 말한다. 기존의 청구서는 일관된 정보를 실은 용지에 고객정보와 요금 등의 내용만 흑백 출력하고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쿠폰을 별지로 제공해왔다.

하지만 신도리코가 선보일 솔루션을 도입하면 고객의 성별, 연령, 기호 등을 고려한 맞춤정보와 맞춤쿠폰을 청구내용과 함께 한 장의 컬러 출력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로써, 기존의 DM 제작보다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고객에게 스팸이 아닌 맞춤형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기업이 고객과의 친밀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표희선 신도리코 사장은 “신도리코의 고속 디지털 컬러 출력 시스템과 피트니보우스 소프트웨어의 고객관리 솔루션의 결합은 트랜스프로모 사업에 있어서 매우 선진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신도리코는 고객이 트랜스프로모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가까운 시일내로 서울본사에 ‘트랜스프로모 비전 센터’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CCM비전센터’에 방문하면 고객관리 및 1:1 맞춤형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CCM솔루션과 고객의 요구에 맞는 개인화된 DM을 컬러 출력하는 초고속 디지털 인쇄기 ‘넥스프레스’가 연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비전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이 가능하며, 사전 예약하면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별도로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할 수 있다.

만로랜드 BPBP 프로그램 호응 받아

만로랜드코리아(주) (대표 케네스 엠 한센)가 만로랜드 매엽 인쇄기 보유회사의 오퍼레이터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BPBP(best press with best printer) 프로그램이 만로랜드 인쇄기 보유회사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인쇄기 오퍼레이터에 대한 관심 부족과 지원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 이때에 개발된 BPBP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오퍼레이터가 본인의 직업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좀 더 발전적인 자기개발의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만로랜드코리아(주)는 프로그램의 구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교육센터장과 마케팅 담당자가 직접 인쇄현장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으며, 오퍼레이터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BPBP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만로랜드 교육센터로 하면 된다.



비, 식품, 제약, 화장품 관련 설비에 이르기까지 포장과 관련된 모든 품목이 총망라되어 개최된다.

이지앤비 종이부터 편집하는 인쇄기법 개발



이지앤비(대표 이충희, www.izinb.com)에서 종이부터 편집하는 인쇄기법을 개발했다.

이번에 이지앤비에서 개발한 종이부터 편집하는 인쇄기법은 디자인의 가공 기법을 다양하게 표현해온 데 이어 디자인의 영역을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예를 들면,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특수지나 수입지 효과를 전면 또는 특정 부분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이 기법은 인쇄 적성 또한 뛰어나 다양한 디자인을 표현하는 것을 지원해준다.

이충희 사장은 “기존의 디자인은 이미지만을 디자인하는데 그쳤지만 새로운 기법으로 종이를 디자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하여 비싼 수입지에 의존하는 인쇄 및 출판업계의 영세업체들에게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디자인의 영역을 크게 확장하는 것은 물론 수입지 대체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지앤비는 책을 쉽게 펼쳐볼 수 있게 하기 위해 개발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이지바인딩을 개발,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며, 이지바인딩은 기존의 무선제본이 갖고 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디자인의 미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고안된 제본방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코리아팩 5월 27일부터 킨텍스에서 개최



오는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30개국 국내외 650업체가 1700부스 규모로 '2008 한국 국제포장기자재전'이 개최된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한국국제 포장기자재전은 '미래, 환경 그리고 좋은 포장'이라는 주제로 각종 포장재료 및 포장기계를 비롯하여 시험검사장비, 물류장

태신인팩 태안기름제거작업 참여



패키지 제조 전문기업인 태신인팩(대표 서명현, www.inpack.co.kr)은 지난 4월 11일 충남 태안군 소재 구름포 해수욕장에서 태안 기름유출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서명현 대표이사를 포함해 20여명이 참여한 이번 작업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뤄졌다. 기름제거작업에 참여한 서명현 대표는 “뉴스로만 듣고, 직업 체험하지 못했던 태안지역의 기름 오염실태를 직접 볼 수 있었다. 몇 시간안되는 작업 시간이었지만, 태안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의미있는 경험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환경과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친환경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모리 사생대회 실시

일진PMS(주)(대표 박경재, www.iljinpms.co.kr)는 오는 6월 6일 오전 10시부터 파주출판도시 내 녹지공원과 자연생태습지에서 고모리 사생대회를 실시한다. 본 행사는 친환경을 주제로 하며, 인쇄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자의 자녀라면 누구나 참가가능하다. 유치부 및 초등 1~3학년, 초등 4~6학년, 중등 1~3학년, 총 3개 부문으로 나뉘며, 각 부문별 1~3등을 심사하며 해당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주어진다.

한국코닥 '코닥 익스프레스 포토샵' 으로 팬시인화 전문점 사업 본격화



한국코닥(주)(대표 안희균)은 지난 3월 26일부터 일반적인 사진 인화 뿐만 아니라 포토 캘린더, 포토 카드 등의 상품 및 디지털 이미지가 프린팅 되는 머그컵, 티셔츠, 쿠션 등과 함께 한 발 더 나아가 사진을 넣은 타일, 양초, 자석액자와 같은 더욱 다양한 사진 관련 상품들을 전문적으로 제작, 판매할 수 있는 팬시인화 전문 프랜차이즈 '코닥 익스프레스 포토샵'을 런칭했다. 코닥 익스프레스 포토샵은 팬시인화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 시장에 따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양한 팬시인화 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했다. 신개념의 코닥 익스프레스 포토샵에서는 염료 승화방식의 최첨단 사진 인화 장비를 도입하여 즉석에서 수초 만에 빠른 사진인화가 가능하며, 원스톱 방식으로 구성된 인화시스템으로 포토앨범이나 포토 캘린더와 같은 팬시인화 제품도 소비자들이 직접 즉석에서 손쉽게 만들어 볼 수 있다. 또한 기존 사진인화 전문점에서와 같이 증명사진이나 여권사진 등도 촬영하여 인화할 수 있고, 대형사진 및 파노라마 사진들도 인화가 가능하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사진을 편집하고 인화할 수 있는 포토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셀프 인화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한국코닥 지용호 이사는 “코닥 익스프레스 포토샵은 코닥의 기술로 진보된 새로운 인화 장비와 기술을 통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사진관 차원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직접 맘에 드는 사진을 골라 다양한 팬시인화 제품을 만드는 즐거움을 주는 공간으로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디지털 사진인화시장은 디카, 폰카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며, 소비자에게는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진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엠피 경기인력개발원과 협약 체결



㈜지엠피(대표 김양평, www.gmp.co.kr)는 지난 4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과 재직자에 대한 교육훈련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재직자의 능력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올리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목적으로 체결됐으며, 1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걸쳐 경기인력개발원 각 학과 교수가 지엠피의 생산 활동 프로세스와 재직자의 직무 능력을 분석, 20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지엠피 김양평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파주지역에 훌륭한 교육훈련 시설과 인적 자원을 갖춘 기관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자사 제품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제품이 더 좋은 제품으로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은 2년 과정의 기계, 전기, 정보통신, 건축, 자동차 분야 등 8개 학과를 개설하여 신기술 교육훈련을 하는 기관으로서 지역 산업체 재직자 교육과 청소년 및 대졸 예비 취업자 교육도 병행하여 취업난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일진페이퍼 물류센터 5월말 완공

일진페이퍼(주)(대표 박경재, www.iljinpaper.co.kr)는 현재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약2만평방미터의 부지에 새로운 물류센터 착공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이 물류센터가 완성되면 대량의 종이재고를 확보하여 파주출판단지를 비롯 일산, 장항동, 서울 등 수도권외 전국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에 빠

른 납품이 가능하게 되며, 이로써 고객에게 더 적극적이고 원활한 종이공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다. 이 물류센터는 2008년 5월말 완공예정이다.

한국후지제록스 신임 사장에 마스다 다케시 씨

한국후지제록스는 지난 4월 1일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마스다 다케시(일본 후지제록스의 총무부장 겸 비서실장)씨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마스다 다케시 신임 한국후지제록스 사장은 1975년 일본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한 후 곧바로 일본 후지제록스에 입사해 지금까지 상품과 시스템 부문의 기획 및 개발 관련 요직을 거쳐 2005년부터는 본사의 총무부장 겸 비서실장으로 재직해 왔다. 기획 및 계획 분야 전문가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앞으로 정광은 대표이사 회장과 유기적인 업무추진협조가 기대된다.



한국오키시스템즈 유동준 신임 대표이사 임명

한국오키시스템즈(대표 하야시 히로시, www.okiprinting.co.kr)는 지난 4월 7일 본사조직개편과 한국시장의 현지화 전략으로 유동준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이번에 임명된 유동준 신임 대표이사는 제록스, 엡손 등 프린터 업계에서만 24년간 일해 온 프린터 마케팅 전문가로 2005년 한국오키시스템즈의 국내 런칭과 함께 영업본부장으로 합류했다. 특히 한국 프린터 시장에 대한 전문성과 적극적인 영업, 마케팅에 대한 리더십이 높이 평가 되었고, 본사의 적극적인 현지화 정책으로 조직개편이 맞물려 이루어졌다. 유동준 신임대표는 “오키그룹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시장에서 기업용 레이저 프린터 라인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이델베르크

드루파 2008 특집호 발간

한국하이델베르크(주)(대표 김범식)는 드루파 2008 특집호를 발행했다. 드루파 2008 특집호는 하이델베르크의 새



로운 모토인 '최고의 성능과 최고의 가치'에 대한 설명을 통해 드루파 2008에 참가하는 의의를 밝히고 있다. 아울러 기술 및 제품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유르겐 라우터트 박사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인쇄인들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하이델베르크 부스에 대한 소개 및 하이델베르크가 새롭게 진출하는 규격대 인쇄기 스피드마스터 XL 145 및 스피드마스터 XL 165를 비롯하여 이를 위한 CTP의 새로운 규격대도 소개했다.

이 외에도 후가공, 워크플로에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신제품들 및 신기술이 소개되어 있다. 또한 하이델베르크 홀 1과 2번 방문을 위해 전시 제품의 위치, 인포메이션 데스크 등 방문의 사전 계획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드루파를 위해 방문한 뒤셀도르프에서 방문할 만한 맛집, 쇼핑 및 관광 장소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이델베르크의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한 드루파 2008 특집호는 드루파를 방문하고 있는 인쇄인 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적 경향에 관심이 있는 인쇄인에게 흥미를 더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메이저 공급제품 드루파 2008 출품

컨트롤시스템 'mRC' · 트렐레보그 프린팅 블랭킷



화성메이저에서 국내 공급하고 있는 레지스터 컨트롤 시스템인 'mRC' (사진)와 트렐레보그 프린팅 블랭킷이 드루파 2008에 출품된다.

Q.I.프레스 컨트롤스(이하 Q.I.)의 운전기용 레지스터 컨트롤 시스템인 'mRC'는 마크가 전혀 필요없는(마크리스) 제품이다.

mRC는 손지를 크게 줄이고 인쇄 품질을 개선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가 필요 없다. 또한 업계 최초로 마크 없는 레지스터, 리본 및 컬러 컨트롤 제품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전시장 부스번호는 홀 17 A56이다.

또한 화성메이저에서 국내 공급하고 있는 트렐레보그 프린팅 블랭킷도 드루파2008에서 소개된다.

불칸 블랭킷은 일반 인쇄, UV, 하이브리드 및 특수 인쇄 등 모든 인쇄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상업 매엽 및 패키지 분야와 더불어 상업 히트셋 및 신문 인쇄에서도 불칸 블랭킷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서는 뒷면이 메탈로 된 블랭킷과 슬리브 실린더 블랭킷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트렐레보그 프린팅 블랭킷은 트렐레보그 그룹의 트렐레보그 엔지니어드 시스템 사업부에 포함된 제품이다. 전시장 부스번호는 홀 6 A41이다.

리소코리아 디지털 프린팅 국내 마케팅 강화

리소의 국내 현지 법인 (주)리소코리아(대표 카미무라 토시오, www.riso-korea.co.kr)가 최근 리소 전 제품의 국내 직접 판매 및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다.

그 동안 총판을 통해 거래되었던 것을 탈피, 직접 한국 본사가 판매체제를 갖추고 나선 것. 이로써 리소코리아는 우리나라 약 1만4천여 곳의 초·중·

고교에서 사용되며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는 디지털인쇄기의 공공부문(학교, 관공서, 교회, 학원 등) 조달 시장내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내 디지털 공판 인쇄 시장 내 약 45%의 기존 점유율을 확대해 비즈니스 시장까지 공략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디지털 인쇄 시장에 대해 리소코리아 오태수 부장은 “디지털 인쇄는 다품종 소량 출판문화와 흑백과 컬러의 절대구분 영역이었던 출력비용 차이가 급감하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기존의 사진 인화, 문서 출력, 서적 인쇄 등으로 경계가 구분된 출판 용어도 사라질 전망”이라며, “특히 학교, 학원 등의 교육시장에서의 디지털인쇄기 업체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무엇보다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의 입장에서 마케팅을 펼쳐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원문화사 사옥이전 기념식



(주)대원문화사(대표 조정석)는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284-124번지에 신사옥을 마련하고 지난 3월 24일 사옥신축 확장 이전식을 가졌다.

대원문화사가 마련한 신사옥은 대지면적 1061.80㎡, 건축면적 1636.10㎡ 지상 3층의 건물로 1층은 인쇄 파트, 2층은 기획실과 영업·관리·임원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은 회의실과 휴게실로 꾸며져 있다. 이로써 대원문화사는 기획에서부터 인쇄납품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토탈 프린팅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기근속(5년~30년) 모범직원 17명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루어졌다.

한국후지제록스 차세대 출력환경 구축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 www.fujixerox.co.kr)는 지난 4월 17일 국내 업계 1위 업체인 아모레퍼시픽(대표 서경배)과 함께 업무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는 ‘차세대 출력환경 구축 프로젝트’를 구축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기업의 모든 사무기구나 문서에 대하여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후지제록스의 ‘매니지드 오피스 서비스(Managed Office Services)’를 근간으로 아모레퍼시픽의 출력환경 전반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한국후지제록스 양희강 상무는 “한국후지제록스가 제공하는 매니지드 오피스 서비스는 출력장비 최적화 및 효율적 관리 체계 도입, 업무 처리 플로 변경, 문서처리 시간 단축 등을 통해 TCO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고민하는 기업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라며 “문서관리 컨설팅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후지제록스는 뛰어난 인재, 기술력, 노하우로 다양한 기업의 성격에 맞는 최적의 문서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진PMS ‘고모리콜 114’ 상담실 운영

고모리의 한국총대리점인 일진PMS(주)(대표 박경재, www.iljinpms.co.kr)는 어렵고 복잡한 법률 및 세무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고모리콜 114’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료 상담실은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매주 금요일 오전10시~12시 2시간 동안 첫째, 셋째 주는 법률, 둘째 넷째 주는 세무 및 경영 상담으로 이루어진다.

상담가로는 각 분야별 전문가 법률-이승문 변호사, 세무-기영서 세무사(전 광주지방국세청장), 태태규 세무사, 경영-문주호 고문(전 한솔제지(주) 대표이사)가 상담을 한다.

박경재 대표는 “어렵고 복잡한 법률 및 세무문제로 고민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고모리콜114를 설치하게 됐다.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담은 사전예약제로 실시되며 상담 장소는 일진PMS 총무로 본사 상담실이다. 상담신청서 배부 및 예약은 02)2268-8200, komori114@naver.com으로 하면 된다.

PRINTING ANTENNA

프린팅 안테나

현대유압 홈페이지 개설



현대유압(대표 김선홍, hd33.co.kr)은 최근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홈페이지는 홈, 회사소개, 제품소개, 온라인문의, 게시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제품소개 코너에는 현대유압이 공급하고 있는 화물용승강기, 포크리프트, 드럼리프트, 드럼포터, 테이블리프트, 높낮이 조절작업대, 이동크레인, 산토카 등의 제품들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김선홍 대표는 “보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경기인쇄기술협회 만로랜드 방문



경기도인쇄정보기술협회(회장 홍사룡)는 지난 4월 1일 만로랜드코리아를 방문했다. 환영인사에서 만로랜드코리아(주) 케네스 엠 한센 회장은 “경기인쇄기술협회와 만로랜드코리아의 친목과 화합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사룡 회장은 “이번 초청을 기쁘게 생각하며 만로랜드코리아(주)가 인쇄업계 발전에 많은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으뜸프로세스 다이니폰스크린 디지털 장비 도입



서울시 중구 필동에 위치하고 있는 으뜸프로세스(대표 양용모)는 지난 3월 18일 다이니폰스크린(대표 전익성)이 공급하는 코니카미놀타 LD-6500 디지털 인쇄기를 설치 완료했다. LD-6500은 분당 65매의 속도로 풀컬러 도큐먼트를 출력하는 장비로써 고품질, 소량 다품종인쇄, 단납기 등 고객의 요구에 충실히 대응하는 디지털 인쇄기로 알려져 있다. LD-6500은 프로페셔널 모델일 경우, 최대 7500매의 용지 공급이 가능하며, 대량인쇄를 위한 견고한 본체(월 30만매 가능)에 다양하고 강력한 후가공 장치(접지기능, 중철기능, 재단기능)를 장착하고 있다. 용지 사이즈는 140×182~330×487mm 이며, 최대 용지무게는 300mg/m² 까지 가능하다. 한편, 으뜸프로세스는 1987년 필름출력 전문업체로 설립된 이래 현재는 고품질 인쇄 전문기업으로써 알려져 있다.

한성피앤아이, 스크린의 플레이트라이트 설치

대구 비산동에 위치한 한성피앤아이(대표 최창근, www.hsprint.com)는 최근 플렉소/레터프레스 CTP 시스템인 플레이트라이트 FX-870을 설치했다.

금번에 설치된 플레이트라이트 FX-870모델은 외장형 드럼 방식으로, 32채널의 레이저 광원을 탑재했으며, 최대 870×762mm 사이즈에 대응하며, 옵션 장착시 씨벌 판재도 겸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한성피앤아이의 최창근 대표는 “국내에 공급되고 있는 다양한 장비를 비교 검토해 본 결과 스크린의 최신형 플렉소/레터프레스CTP시스템인 플레이트



라이트 FX-8700이 인쇄품질의 고급화 및 운용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도입했다"라며 "장비 도입과 더불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고품질의 인쇄와 차별화된 선진 인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산솔루션, 보광문화사에 탄토6120 설치

자산솔루션(대표 임성훈)

은 멕시코에 위치한 보광문화사(대표 최권석)에 다이넨스크린의 필름출력기 탄토6120을 설치 완료했다. 이번에 보광문



화사에 설치된 탄토6120은 외장형 드럼 방식의 CTF로 필름, 인쇄지, 실버 플레이트 등의 다양한 미디어에 이용할 수 있으며, B1사이즈에서 최소 A2사이즈까지 6종류의 사이즈가 가능하다. 120채널의 LED광원을 탑재했으며, 최대 노광 사이즈는 810×1120mm, 최대 해상도는 400dpi이다.

한국에이버리 제11회 중국 인쇄 학교 개최



한국에이버리(주)(대표 송경환)는 최근 중국 쿤산시 에이버리 플랜트(plant)내에 위치한 인쇄학교에서 라벨 인쇄에 관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에이버리 인쇄학교는 2000년 2월에 개원한 이래 한국, 일본, 중국, 호주, 아세안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의 라벨인쇄 종사자들에게 이론과 실무에 입각한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해 왔다.

NEW PRODUCT

신제품

엡손 친환경 모노 레이저 프린터 출시

엡손코리아(대표 히라이데 슈운지)는 지난 4월 7일 '엡손 리턴 & 리사이클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적용시킨 보급형 모노 레이저 프린터 '아큐레이저



M2010D/DN'을 선보였다. '아큐레이저 M2010D/DN'은 절전 시 3W까지 떨어지는 소비전력과 낮은 소음 레벨로 미국 정부의 에너지 절약 장려 국제 프로그램인 에너지 스타(Energy Star) 로고도 획득했다. 또한, 프린터 사용 후 퓨저가 빠른 시간 내에 꺼지는 '에코 퓨저 모드'(Eco-Fuser mode), 프린터 내부의 열기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팬(Fan)의 빠른 전원 차단(약 60초 이내) 기능도 친환경적인 요소다.

니콘이미징코리아 콕픽스 신제품 3종 발표

니콘이미징코리아(대표 야마구치 노리아키)는 광학 18배 줌 렌즈를 탑재한 콕픽스 P80, 디자인이 돋보이는 콕픽스 S52, 무선 랜(Wi-Fi) 기능을 탑재한 S52c 등 콕픽스 디지털 카메라 신제품 3종을 발표했다.

콕픽스 P80은 작은 크기(약 110×79×78mm)면서도 광학 18배 줌 렌즈를 탑재해 35mm 환산으로 광각 27mm부터 초망원 486mm까지 촬영이 가능한 기능성을 중시한 콕픽스 카메라이다. 콕픽스 S52와 S52c는 스타일리쉬하면서도 고기능을 자랑하는 콕픽스 S 시리즈 신제품으로 무엇보다 아름다우면서도 조작하기 쉽도록 설계됐다.

PAPER NEWS

제지뉴스

무림페이퍼/무림SP 정기주주총회 개최



무림페이퍼(대표 김인중)와 무림SP(대표 이동욱)가 각각 제35기, 제5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무림페이퍼 정기주주총회는 지난 3월 20일 오전 진주공장 7층 대강당에서 개최됐으며, 김인중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지난 기수의 영업보고와 감사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가 있었다. 또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대한 주주 다수의 승인이 있었다. 상근이사에 김영식 상무가 신규 선임됐으며 이장화 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다.

한편 무림SP 정기주주총회는 지난 3월 21일 대구공장 연수실에서 개최돼 상근이사에 이규현 전무, 사외이사로는 정진택 사외이사가 선출됐다.

무림페이퍼, 새봄맞이 가족 음악회

무림페이퍼(대표 김인중, www.moorim.co.kr)는 지난 4월 12일 진주챔버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메세나로 새봄맞이 가족 음악회를 가졌다. 평소 무림사랑나눔미가 봉사활동을 펼치



고 있는 진주복지원에서 진행한 이번 음악회는 장애인 및 일반 봉사자 등 100여명이 함께 즐겼다. 음악회에서는 가요, 샹송 등 친숙한 음악들로 사랑을 전달했다. 한편, 무림제지의 메세나 활동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무림페이퍼 2009 달력디자인공모전

무림페이퍼(대표 김인중, www.moorim.co.kr)가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달력디자인공모전을 개최한다. 무림 달력디자인공모전은 지난해 처음 실시한 1년 14개월용 달력 디자인이 공모전 참가자 뿐 아니라 달력을 받아본 고객들에게도 참신하다



는 평가를 얻자 올해도 1년 14개월용(2008년 11월~2009년 12월)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직 디자이너에게도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전 상금은 총 1200만원으로 대상은 상장·상패와 함께 상금 500만원을 수여하며, 최우수상은 상장·상패와 함께 상금 200만원을, 우수상과 장려상은 상장과 함께 각각 100만원,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작품은 7월 25일까지 우편 및 방문접수 가능하며, 심

사발표는 8월 29일 홈페이지와 개별연락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무림페이퍼 안상철 홍보팀장은 “무림달력디자인공모전이 올해는 대학생 뿐 아니라 현직 디자이너 등 일반인들에게도 참가자격을 확대한 만큼 보다 독창적이고 전문화된 디자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솔제지 식목일 행사



한솔제지(대표 선우영석, www.hansolpaper.co.kr)는 지난 4월 3일 식목일을 기념해 서울 역삼동 사옥 앞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베고니아와 허브 등 화분을 나눠주는 ‘한솔제지와 함께 새 봄을’ 행사를 가졌다. 한솔제지 측은 “해마다 식목일을 기념해 전국 각지의 조림지에서 나무를 심어 왔는데 올해는 특별히 평소 자연을 접하기 힘든 도심 직장인들에게 화분을 나눠줌으로써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가정 및 사무실의 분위기 전환에 일조하기 위해 조림행사 이외에 색다른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솔제지는 화분 나누주기 행사를 가진 후 임직원 100여명이 충청남도 태안에 위치한 조림지에서 소나무 1000그루를 심었다.

한솔제지 환경보호 국제인증(FSC) 획득

한솔제지(대표 선우영석, www.hansolpaper.co.kr)는 지난 4월 9일 환경보호 국제 인증인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을 획득했다. 한솔제지는 먼저 북미지역에 수출하는 아트지 ‘밀레



니엄’ 등 2개 지종부터 인증 로고를 붙여 공급할 계획이며 수출 물량의 10% 정도에 인증 로고를 붙여 시험적으로 공급한 뒤 점차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FSC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이 시행되는 숲에 FM(Forest Management, 산림관리) 인증을 부여하고 FM 인증 산림에서 채취한 목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가공 단계에 CoC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숲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하고 있다.

최근 산림 파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목재와 종이제품의 출처에 대해 고객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고객이 구입한 제품이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요구하는데 대해 공신력이 있는 인증이 FSC 인증이다. 한솔제지 영업본부장인 서재우 부사장은 “이번 FSC 인증 획득으로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수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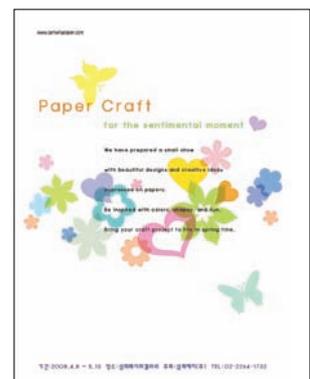
삼화제지, 페이퍼 크라프트전 개최

삼화제지(주)(대표 김연호, www.samwhaper.com)는 지난 4월 8일부터 서울 을지로에 소재한 삼화페이퍼 갤러리에서 ‘페이퍼 크라프트(Paper Craft)’전을 열고 있다.

삼화제지와 벨크라프트(주)와 공동주체로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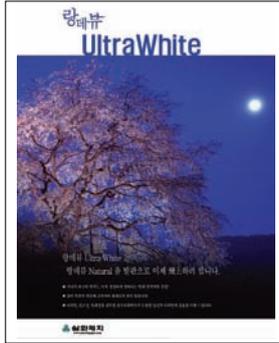
한 ‘페이퍼 크라프트’전은 Art & Craft 분야에서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가장 환영 받는 카드 마케팅, 스크랩 북 관련 디자인 제품들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기획전시이다. 이번 전시품목은 심플한 블랭크카드부터, 미려한 모양새를 자랑하는 칩보드와 카드, 테마별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의 6인치, 12인치 배경지, 입체감과 화려한 기법이 돋보이는 입체스티커 등이다.

이번 전시회는 5월 중순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삼화제지 랑데뷰 울트라화이트 출시

삼화제지(주)(대표 김성호, www.samwhpaper.com)는 지난 4월 1일 랑데뷰 울트라화이트를 출시했다. 회사의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된 랑데뷰 울트라화이트는 기존의 랑데뷰 네추럴 색상을 발판으로 국내지 최고의 백색도로 고백색이 오래도록 변치 않고 종이 특유의 면감에 더욱 생생하게 살아나는 인쇄 발색력으로 또 한 번 고객들에게 감동을 안겨 줄 것”이라고 밝혔다. 울트라화이트 샘플 북은 을지로에 있는 삼화페이퍼갤러리에서 배포하고 있다.



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윤전 인쇄 고객을 대상으로 “웹페드 포럼”을 마련했다.

이번 포럼은 그 동안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부족했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자리로 초대받은 한정된 윤전 고객만을 대상으로 “High Volume Printing, Paper Solutions, Market Challenges”을 주제로 윤전 인쇄와 관련된 전세계의 최신 트렌드와 전망이 심층적으로 다루어졌다.

특히, 피터 쿠이즐레(Peter Kuisle) 만로랜드 본사 윤전부문 총책임자는 포럼에서 특별한 포맷 요구의 증가, 짧아지는 인쇄 부수, 고품질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피터 쿠이즐레씨는 “그 동안 만로랜드의 윤전부문은 전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으며 자동화 수준 및 표준화 작업 전환 덕분에 소량 인쇄도 가능한 높은 생산성의 대량 인쇄에 대한 대명사나 다름없다. 또한 만로랜드는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고객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세계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WORLD NEWS

해외뉴스

아그파 무현상 판재 아주라 TS시리즈 출시

아그파 그래픽스는 환경 친화적으로 시장에서 안정성을 유일하게 검증된 아주라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드루파 기간에 선보인다고 발표했다.

아주라 TS는 50% 이상 생산성이 더욱 향상되었으며, 콘트라스트가 더욱 향상됐다. 아주라 TS는 기존 아주라를 기반으로 더욱 세심하게 코팅되어 10만통에서 50%정도의 생산성 향상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또한 콘트라스트가 향상되어 사용자들이 더욱 쉽게 눈으로 식별할 수 있다.

아주라는 아그파의 써모퓨즈 기술을 사용하여 어떤 화학적인 현상 단계를 거치지 않고 물리적으로 이미지를 구현해 낸다. 이미징되는 동안 눈으로 식별할 수 있어 판재의 안정성은 물론이요 기계에 별도의 처리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기존의 일반 써멀판과는 다르게 아주라 TS는 화학적인 현상 과정이 없이 플레이트에 있는 거멍만을 제거하는 단순한 거멍 제거 단계만을 거치므로 화학용액의 사용 및 폐수처리 비용이

만로랜드 윤전부문, 웹페드 포럼 개최



세계 최대 윤전기 제조회사인 독일 만로랜드(MAN Roland Druckmaschinen AG)는 지난 4월 4일 장충동 신라호텔에

들지 않고 또한 아그파C95,125 크린아웃 유니트는 전력 사용이 작고 사이즈가 작아 공간 효율성을 높여주어 중소기업용 시스템을 운용중인 상업 인쇄업체들에 더욱 매력적인 제품이 될 전망이다.

현재 아그파 플레이트는 전세계 2천여개 사 이상이 설치 사용하고 있으며 Azura TS는 보편적인 장비 및 잉크, 재료 등을 사용하여 사용해도 고품질의 인쇄물을 재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에이버리데니스 DM 레이블 그룹 인수

에이버리데니스가 6개국에 제조시설을 두고 고품질 직조라벨을 생산하는 DM 레이블 그룹(DM Label Group)을 인수한다고 지난 4월 1일 발표했다. DM 레이블 그룹은 대만 타이베이에 본사를 두고 있다.

에이버리데니스의 딘 A. 스카버러(Dean A. Scarborough) 사장 최고경영자는 “DM 레이블 그룹 인수는 세계 어디서든 고객들에게 가장 뛰어나고 신속하며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사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반영한 것이다”라며 “DM 레이블 그룹은 당사의 직조라벨 제품군을 강화, 전세계 의류 및 소매업 브랜드 부차, 인쇄 업계의 주된 아웃소싱 지역인 아시아 내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DM 레이블 그룹 인수는 지난해 에이버리데니스 RIS(Retail Information Services, 소매정보서비스) 사업부가 단행한 파사(Paxar) 인수, 통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RIS는 브랜드 표시 및 공급망 관리 솔루션 분야의 세계적인 업체로, 주로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상표택, 라벨 디자인과 인쇄, 재고·출하정보 추적,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DM 레이블 그룹의 제임스 수(James Hsu) 사장 최고경영자는 “당사는 에이버리데니스와 오랫동안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이번에 에이버리데니스에 합류함으로써 당사는 제품 다양화, 세계진출영역 확대, 각 지역 경쟁력과 자원 증가라는 장점을 고객들에게 제공, 소매업체나 브랜드 소유업체, 제조업체가 각각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이델베르크 스피드마스터, 미 여권 인쇄

하이델베르크 미국지사는 미시시피에 위치한 스텐니스 스페이스 센터에 위치한 새로운 안전 시설에 미국 여권 인쇄를 위한 스피드마스터 SM 102, 7도 인쇄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 인쇄기는 보안 인쇄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UV 코팅과 함께 특별한 레인보우 잉킹 유니트를 장착하고 있다.



하이델베르크 미국지사는 지난 2년여간의 노력으로 이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의회 승인을 받아냈다. SM102-7 인쇄기와 더불어 2대의 풀라 115X와 추림기가 설치되어 인쇄된 미국 여권을 재단하게 된다.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

하이델베르크 고객사인 칼라크라프트 방문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는 지난 3월 26일 버지니아주 스텔링에 위치한 미국 인쇄 기술 협회 회원사인 칼라크라프트(ColorCraft) 인쇄사에 방문, 인쇄 산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최근 통과된 미국 경제 부흥 정책 패키지의 효과에 대해 칼라크라프트사 직원들에게 설명했다.

PIA는 칼라크라프트와 같은 소규모 업체에게 비용과 보너스 감가상각을 높일 수 있는 경제 부흥 정책을 지지한 바 있으며 부시 대통령은 칼라크라프트는 의회가 통과시킨 부흥 정책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작지만 성장하는 회사라고 말했다. 칼라크라프트사 사장인 짐 메이어스는 전 PIA/GATF 회장으로 회사를 안내하며 부흥 정책에 힘입어 구매했던 칼라크라프트사의 최신 시설과 기계를 선보였다.

PIA/GATF 회장인 마이클 마킨은 “부시 대통령이 찾아준 것은 인쇄 산업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며 칼라크라프트사와 모든 회원사의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